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신속한 복구 국민과 함께

보도시점 (인터넷, 지면) 2025. 8. 1.(금) 15:00

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, 경기 가평군 호우 피해복구 및 여름철 안전관리 현장점검

- 호우 실종자 수색 및 피해복구 상황 점검, 폭염 속 복구현장 근로자 격려
-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및 물놀이장 수상안전 등 여름철 안전관리 실태 점검

□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일(금) 경기도 가평군을 방문해 호우 피해복구 상황과 여름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
○ 가평군은 지난 7월 16~20일까지 시간당 최대 76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(사망 5, 실종 2*)와 재산피해(도로 유실, 주택 침수 등)가 발생함에 따라, 22일(화)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.

* 7.31. 실종자 중 1명(추정, 신원확인 중) 추가 발견 사항 미반영

□ 윤호중 장관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, 극심한 폭염 속에서 수색에 종사 중인 구조 대원을 격려했다.

○ 윤 장관은 “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또한,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현장도 둘러보며,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.

○ 윤 장관은 폭염 속에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, 신속한 복구에 애쓰고 있는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□ 행정안전부는 경기 가평군 등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총 12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지원했으며, 이재민 긴급구호, 주거지원과 함께 중앙합동피해조사를 통한 복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.

○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계부처,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 운영하고, 폭염 등 기상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극한강우가 빈발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름철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했다.

○ 윤 장관은 조종면 노인회분회를 방문해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, 어르신들이 쉼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애로사항도 청취했다.

○ 또한, 휴가철 물놀이를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성리 황새바위를 방문해, 강변을 따라 직접 걸으며 인명구조함·부표 등 안전시설 상태와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수상안전 관리 실태도 확인했다.

□ 윤호중 장관은 “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”라며,

○ “아울러, 이번 여름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, 관계기관과 함께 물놀이장 등 수상안전 관리와, 무더위 쉼터 운영을 비롯한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 괄>	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식 (044-205-3104)
<수상안전>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	책임자	과 장	박범수 (044-205-4240)
		담당자	사무관	박회성 (044-205-4251)
<호우피해복구, 무더위 쉼터>	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응범 (044-205-5110)
		담당자	사무관	류해춘 (044-205-511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